

화성특례시 AI 교육 통합 생태계 구축 전략:

# Intelligent Amber

## 프로젝트 '화성-AION' 실행 로드맵

2025년 12월 15일

네오픽스에이아이 주식회사

정우진 대표이사

# 100만 화성특례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산된 교육을 '통합 컨트롤타워' 산하로 재편하고 실무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As-Is (현황 및 한계)



전국 1위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9.1억 원의 교육 예산이 12개 산하기관 및 50여 개 부서에 파편화. 전체 교육의 57.1%가 5시간 미만의 1회성 기초 교육에 편중됨.

## Vision (전환점)



모두를 위한 통합된 AI 열린 네트워크, 『화성-AION (AI Integrated Open Network for Everyone)』 구축

## To-Be (3대 핵심 과제)

1. 거버넌스: 'AI 전략담당관' 중심 통합 컨트롤타워 신설

2. 체계화: 3-Track & 4-Level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3. 인증/생태계: '화성 AI 온 지수' 디지털 배지 및 시민 강사 양성

Key Takeaway: 파편화된 예산(Silo)을 통합 거버넌스로 묶어 실무(AX) 중심의 AI 생태계로 대전환.

화성시는 압도적인 첨단 산업 인프라와 재정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 AI 대전환(AI)을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95.2조

GRDP 전국 1위 (경기도 전체 16.2%)

2,381개

경기도 내 기업연구소 1위

2.3배

판교 대비 동탄테크노밸리 규모

•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대전환(AI)' 도입 수요 폭증

Key Takeaway:  
대한민국 1위의 재정·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AI 예산을 선점할 골든타임.

7,100억 원

2024년 중앙정부  
'AI 일상화' 투입 예산

국비 매칭 펀드 확보의 절대적 골든타임

# AI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심각한 예산 비효율 및 사각지대 발생

- 현황: 12개 산하기관, 50여 개 부서 파편화
- 문제점: 예산 누수 및 교육 접근성 단절, 커리큘럼 중복 및 질 관리 불가

## 9.1억 원

AI 교육 예산의 산발적 집행

## 50여 개 부서

12개 기관에 쪼개진  
파편화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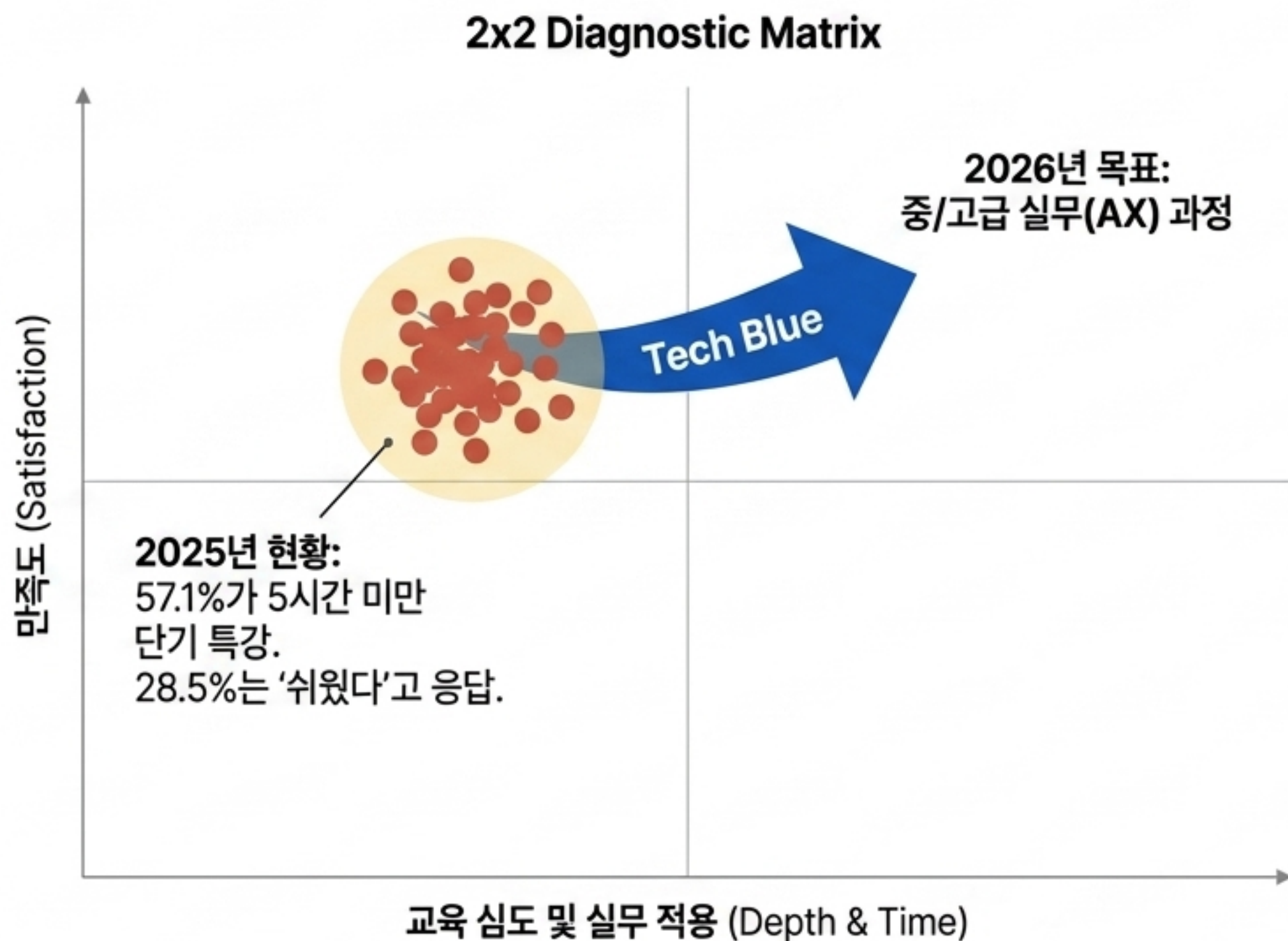
- **통합 플랫폼 부재:**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 완전 단절

- **커리큘럼 중복:**  
기관별 질 관리(QA) 불가능

- **현장 담당자 85%:**  
“타 기관 사업과 중복 우려 및  
연계 필요성 호소”

**Key Takeaway:**  
12개 기관, 50여 개 부서로  
쪼개진 9.1억 원의 예산 누수를  
막을 구심점이 부재함.

# 2025년도 교육은 '만족도'는 높았으나, 대다수가 5시간 미만의 단순 체험에 그쳐 실무 적용(AX)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 Key Takeaway

57.1%가 5시간 미만의 1회성 체험.  
단순 교양을 넘어선 중/고급 실무(AX)  
과정으로의 전면 개편 시급.

## Root Cause Analysis [질적 미스매치 발생]

1. 절대적 교육 시간 부족:  
1회성 체험에 머물러 실무 역량 전환 실패.
2. 내부 기획 역량 공백:  
고부가가치 교육을 설계할 공무원/기관  
직원의 AI 전문성 부족이 고급 과정 개설의  
최대 장애물.

최상의 산업 인프라(S)와 최악의 행정 파편화(W)가 공존하는 극단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내부 모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극단적 강점  
(S & O)

극단적 강점 (S & O)

- 압도적 첨단 산업(R&D) 기반
- 중소기업의 폭발적 실무 AI(AX) 수요

전략적 시사점:

새로운 외부 사업 확장이 아닌,  
파편화된 자원을 통합하는  
'내부 거버넌스 재건'이  
성공의 절대적 선결 조건

치명적 약점  
(W & T)

치명적 약점 (W & T)

-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 및 행정 파편화
- 산업계 요구와 동떨어진 기초 수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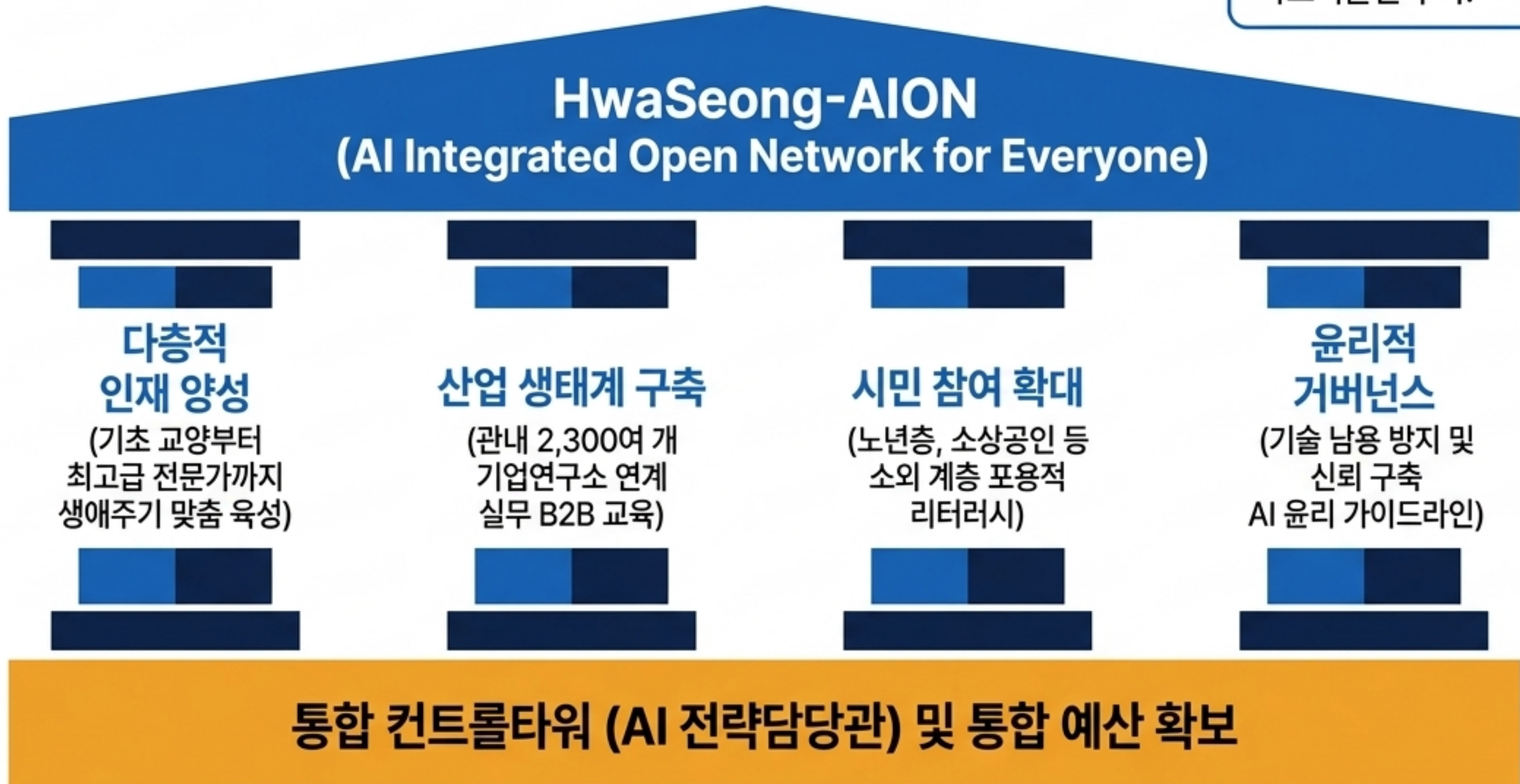
Key Takeaway:

신규 사업 추가보다 앞서야 할 것은  
기존 파편화된 자원(Silo)의 통합과  
내부 기획 역량 확보.

100만 화성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두를 위한 열린 네트워크 『화성-AION』 비전을 제안합니다.

**Key Take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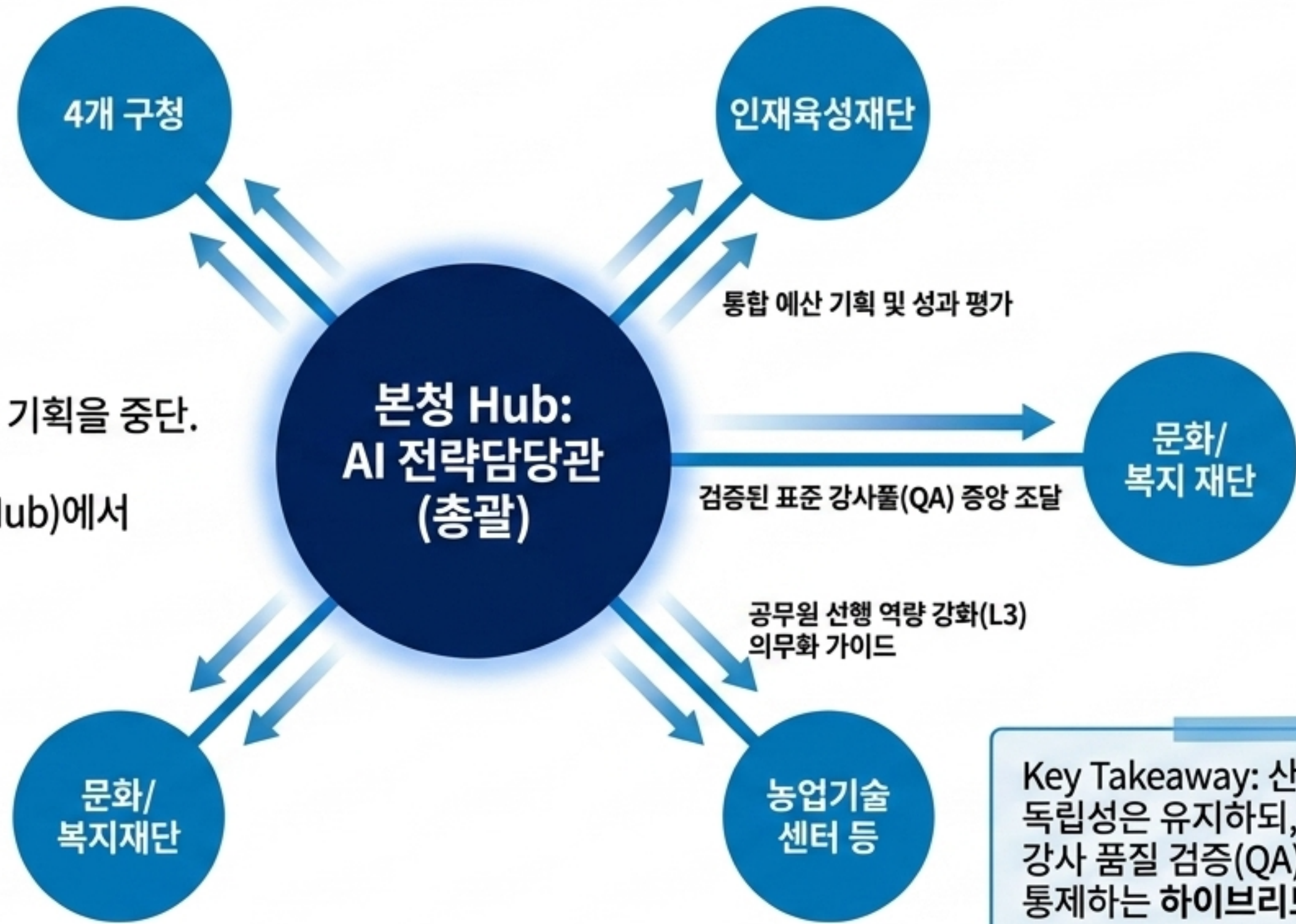
파편화된 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AION)로 연결하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마스터플랜 구축.



# 흩어진 예산과 인력을 하나로 묶어 기획·조정·평가를 전담할 'AI 전략담당관' 중심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합니다.

## [거버넌스 통합의 핵심]

기존의 부서별 예산 쪼개기 및 단발성 기획을 중단. 산하기관의 실행 독립성은 보장하되, 강사 품질 검증과 예산 조정은 중앙(Hub)에서 통제하여 상향 평준화 달성.



Key Takeaway: 산하기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예산 조정과 강사 품질 검증(QA)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3-Track과 수준별 4-Level을 교차 적용하여, 단 한 명의 소외도 없는 촘촘한 커리큘럼(MECE)을 제공합니다.

	Level 1 (기초/온라인)	Level 2 (활용)	Level 3 (직무/심화)	Level 4 (전문가/리더)
Track A (학생/시민)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	AI 도구 활용 및 창작	SW/AI 프로젝트 실무	미래 기술 창의 인재
Track B (공무원)	기초 행정 SW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정책 기획 및 자동화	스마트 행정 리더
Track C (산업/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초	디지털 마케팅 및 ERP	산업별 AI 도입 실무	DX/AX 전문가

**Key Takeaway:**  
1회성 기초 교육(L1)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심화/심화/실무 교육(L3, L4)에 자원 집중.

- Track A: 포용적 디지털 생활 편의 및 창의 융합 인재 양성
- Track B: 행정 업무 자동화 및 기획력 향상
- Track C: 관내 중소기업 실무 AX 도입 및 소상공인 업무 최적화

전략적 예산 시프트: 예산의 70% 이상을 실무 중심 고부가가치 교육에 집중 투입

# 단순 수료증 발급을 넘어, 학습 이력을 공식 증명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기반의 '화성 AI 온 지수'를 도입합니다.

## [화성 AI 온(ON) 인증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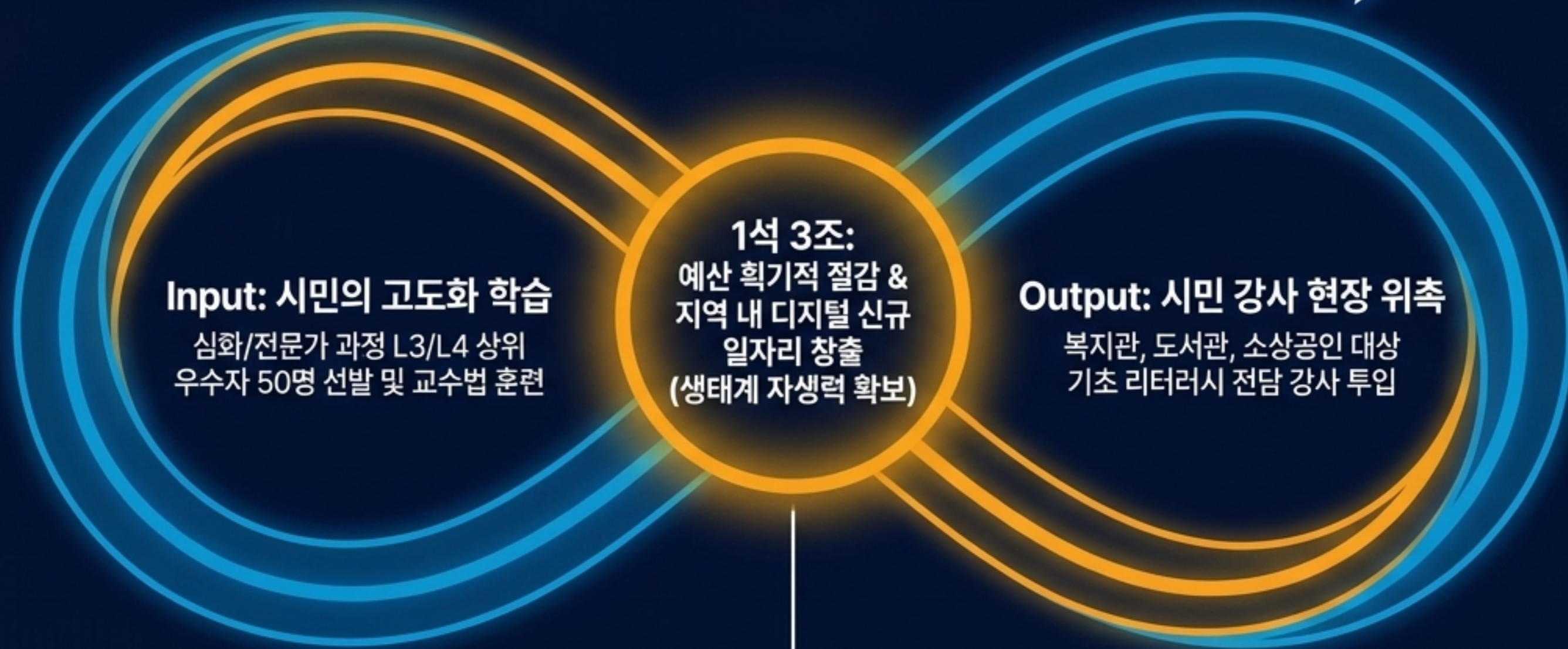
- 한계 돌파: 기존 1회성 종이 수료증은 학습 지속성 담보 불가.
- 국제표준 디지털 배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급되어 링크드인, SNS 등에 즉시 공유 가능한 공식 학습 이력 증명.
- 4-Level 연동 등급제: 교육 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배지 자동 업그레이드.
- 산업계 인센티브 연계: 관내 기업 채용 시 객관적 AI 실무 역량 검증 지표로 활용 추진하여 시민 자발적 동기 극대화.



교육을 받은 우수 수료자가 다시 화성시의 강사가 되는  
'시민 강사(Civic Instructor)' 제도를 통해  
교육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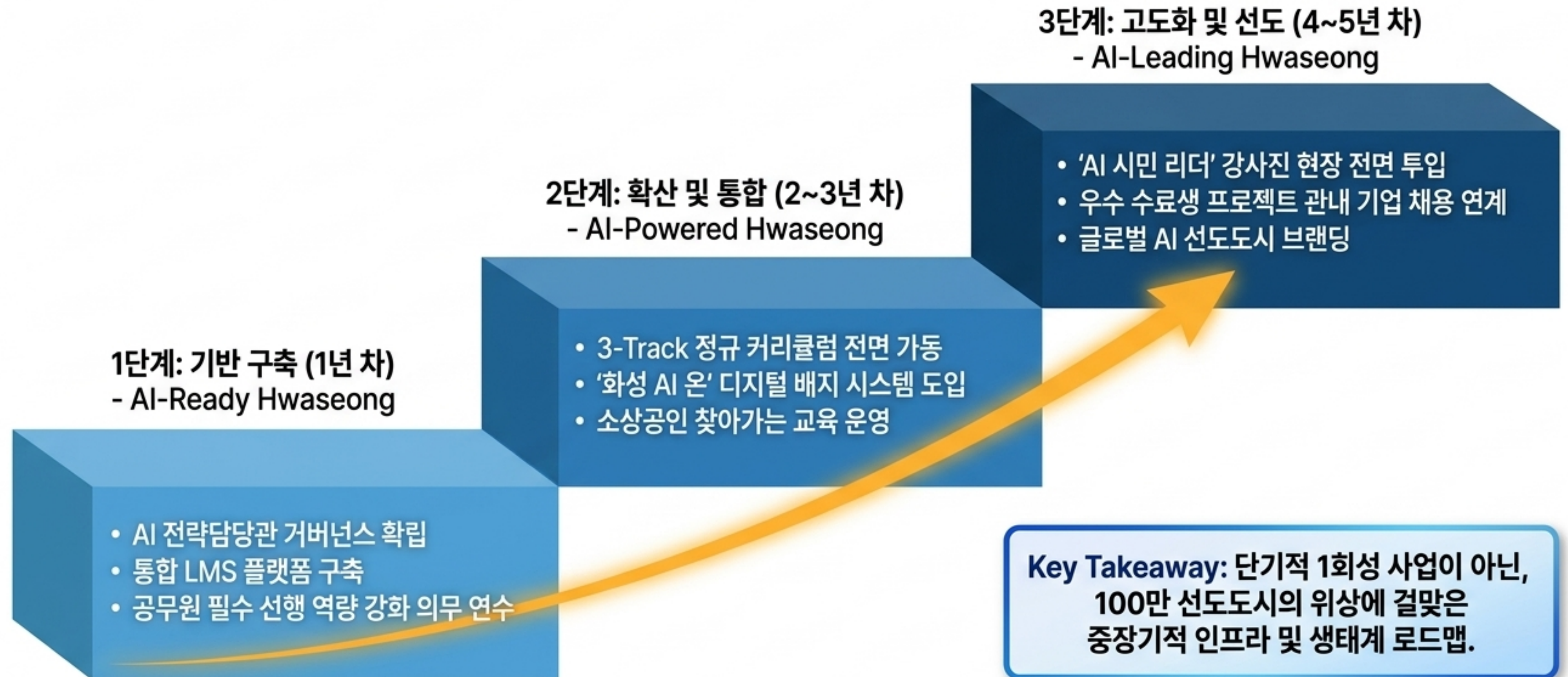
**Key Takeaway:**

외부 의존형 강사 수급을 탈피하고,  
화성시민이 화성시민을 가르치는  
자생적 교육 모델(Civic Instructor) 확립.



**문제점 돌파:** 예산의 대다수가 외부 전문 강사 섭외 비용으로 소진되는  
병목 현상을 타파하고, 화성시민이 화성시민을 가르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AI for All' 비전 달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부터 확산, 자생적 선도 단계에 이르는 5개년 마스터플랜을 실행합니다.



# 프로젝트 '화성-AION'의 성공적 실행은 행정 효율화, 지역 경제 활성화, 포용적 복지라는 3대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것입니다.

## Key Takeaway:

교육 혁신은 곧 행정·산업·복지의  
동시 도약입니다. 지금 당장  
통합 거버넌스를 결단해야 합니다.



**[최종 제언]** 100만 특례시 원년, 산재된 예산을 묶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AI 통합 거버넌스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논의'**를 즉각 개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